

전례와 선교의 활성화 ·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매진합니다

편집 및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4길 112(남산동) (053)250-3048~9 _ <http://www.daegujobo.or.kr>



† 오늘의 전례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양이시다.”

(요한 1,29-34 참조)

‘하느님의 어린양’은 구약 성경의 파스카 양을 가리킵니다. 오늘도 사제는 영성체 직전에 세례자 요한의 증언을 반복합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려고 하느님께서 손수 마련하신 제물인 예수님께서 사제의 손에 들려 우리 눈앞에 나타나면, 우리는 요한처럼 빵의 모습을 하신 그분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알아보고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응답합니다.

남산동

옛 성유스티노 신학교 제대,
홍창익 비오 신부 사진

제1독서 이사 49,3,5-6

제2독서 1코린 1,1-3

복음 요한 1,29-34

입당송 하느님, 온 세상이 당신 앞에 엎드려 당신을 노래하게 하소서. 지극히 높으신 분, 당신 이름을 노래하게 하소서.

화답송 주님, 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영성체송 주님이 제게 상을 차려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찬현 야고보 신부 | 신서본당 주임

지난 해 우리는 약 4주간의 대림시기를 잘 준비하여 기쁨의 예수 성탄 대축일과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축일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올 첫 주일에 별의 축제라 불리는 주님 공현 대축일과 지난 주 주님의 세례 받으심을 기념하는 주님 세례 축일을 지냈습니다. 이제 사순시기를 시작하는 재의 수요일까지의 짧은 연중시기를 지내게 됩니다. 연중시기는 성령 강림 대축일 다음날부터 대림시기가 시작되는 대림 제1주일까지의 긴 기간에 또 지내게 됩니다. 이렇게 지내는 연중시기에 미사 독서와 복음은 교회의 복음화(선교)가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예수님의 공생활과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을 들려줍니다. 또 그리스도의 신비를 다양하게 경축하고, 성인들을 자주 기념합니다. 연중시기의 주일은 ‘작은 부활축제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경축하는 기쁜 날이기도 합니다.

하느님은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려는 온 인류의 열망을 결코 “나는 몰라.”라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이 당신의 뜻을 받아들이어 온전히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뜻을 알고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하느님의 뜻을 알고 받아들이고 이를 실천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구세주이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을 체험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느님을 신뢰하고 그분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느님의 뜻을 따릅니다. 성령을 받아 종이 되고, 증인이 되고, 사도가 됩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 대한 세례자 요한의 증

언이 장엄하게 들려줍니다. 사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알게 되는 단계들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지만”(31,33절) 그분이 자기 쪽으로 오는 것을 보고 서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양”으로, 그리고 “내 뒤에 한 분이 오시는데,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라고 증언하게 되었고(29절),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저분 위에 머무르시는 것”과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분에게 세례를 베풀으로써 알게 되었으며(33절), 마침내는 가장 완전한 고백이라 할 수 있는 “그분을 보았고,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증언(34절)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대한 세례자 요한의 증언은 예수님을 체험한 다음에야 할 수 있었던 것들이었습니다.(32절) 즉 예수님께서 누구인지 모르다가 예수님을 체험하고 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자 요한에게 예수님을 알아듣고 증언하도록 이끌어주신 그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마침내 예수님을 우리 생활 속에서 체험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제 우리도 세례자 요한이나 바오로 사도처럼 자신의 체험을 증언해야 합니다. 세상에 예수님을 ‘세상의 죄를 없애시기 위해 오신 어린양’으로, 그리고 ‘우리가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세상에 증언해야 합니다. 오늘 복음과 세례자 요한의 증언이 우리에게 이런 도전장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세상에 주님을 “어떻게 증언하겠습니까?” **필문**

2014년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 담화문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단 말입니까?”

(1코린 1,13)

2014년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 자료집은 캐나다의 그리스도인들이 초안하고 교황청 교회일치촉진평의회와 세계교회협의회와 함께 검토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캐나다에는 오래전부터 그곳에서 살던 원주민들과 유럽에서 대규모로 이주한 이주민들이 자연의 혜택을 누리며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전 세계에서 모여든 다양한 문화와 언어 등, 특히 캐나다의 문화를 풍성하게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나 유독 원주민들을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편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캐나다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일치 운동을 전개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자연과 자원, 문화와 언어가 서로 조화되는 일, 그 중에서도 원주민들의 생활방식과 문화를 존중하는 일 역시도 일치 운동의 중요한 과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인류 공동체가 지속가능하다는 것을 역설하며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단 말입니까?”라며 코린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진 사도 바오로의 질문을 주제로 채택하였습니다.

한국에서 사는 우리들 역시 이 사도의 질문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교 역시 처음 도래되었을 때 민족문화와 갈등하며 많은 고난을 경험한 천주교와 100여년 뒤에 들어온 장로교, 감리교

등 그리스도교회들은 누가 결의한 것은 아니었지만 차별화 정책을 채택함으로 갈등의 역사를 써왔으며 여전히 서로 다른 종교인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는 천주교나 다른 여러 그리스도교파들의 분열상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시지 않은 것과 같이 교회도 결코 갈라진 적이 없습니다. 단지 그리스도인들이 갈라졌을 뿐입니다.

우리는 한국 그리스도인 일치 운동의 과제를 보다 명료히 하고 보다 강화된 활동을 위하여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가) 창립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전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한 일치와 협력의 경험을 토대로 이해와 화해의 정신이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구체적으로 이뤄지게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다는 말은 주님께 드릴 온전한 신앙고백을 회복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단 말입니까?”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주시기를 빕니다.

주교회의 교회일치와 종교간대화위원회
위원장 김희중 대주교

한국성인 탄생 30주년, 1월 21일 이윤일 요한 성인 순교하신 날에

최홍길 레오 신부 | 수성본당 주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국 성인 103위 탄생 30주년 상야경축(象牙慶祝), 2014년 새해 새 아침입니다. 또한 대구의 순교자 20위와 더불어 '하느님의 종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가 새로운 복자로 선포되는 참으로 은혜롭고 가슴 벅찬 한 해를 살게 되었습니다. 매년 새해를 맞이하고 1월이고 21일이 되면 공연한 상념과 회억에 잠기는데 금년은 더욱 유별나고 의미 있는 날로 다가옵니다. 지금부터 꼭 30년 전 한국교회 2백 주년의 해 1984년 1월 21일, 필자는 대형 교통사고를 당한 바 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다섯 시간을 지내며 자동차 파편으로 피를 흘리며 크게 상처 난 얼굴에 2백 바늘을 꿰매던 때를 잊지 못합니다. 1월 21일은 성녀 아녜스 동정 순교자 기념일이면서 대구대교구의 제2수호자 이윤일 성인께서 대구 관덕정 형장에서 순교하신 날입니다. 또한 국가적으로는 조금 오랜 이야기이지만 김신조를 비롯한 북한의 31명 무장괴한이 청와대를 습격한, 이른바 1968년 1.21사태가 생각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윤일 요한 성인의 순교일에 사고를 당한 탓인지 성인과 특별한 인연으로 살게 된 듯합니다. 1986년 7월 5일, 제8대 교구장 착좌 후 12월 성인의 분묘를 발굴하고 거룩한 유해를 대구로 이장 봉안하는 데 일역을 감당할 수 있었음은 교구의 한 사제로서 일평생 잊지 못할 크나큰 은혜로움이요 감사며 감동이고 감격이었습니다. 사제로 살면서 때로 역경에 부닥칠 때면 당시 성인의 자취를 따라 성인의 숨결을 느끼며 경기도 용인군 이동면 묵리와 안성군 미산면 미리내 등지를 답사하던 때를 떠올리게 됩니다. 성인의 6대손을 만나 비디오와 사진촬영을 하고 관련 자료를 초상화의 대가인 박득순 서울대학교 명예

교수에게 건네 관덕정 순교자기념관 지하경당의 성인화를 제작할 수 있었음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시간은 어김없이 지나가고 세월은 유수(流水)와 같다는 말이 실감납니다. 한해 두해, 자꾸만 하루하루가 바쁘게 생각 없이 정신없이 흘러갑니다. 필자의 줄저 '지나간다 그리고 심판을 받는다'라는 제목을 자주 되뇌어 봅니다. 시간 속에 세월 속에 당시 이윤일 성인의 거룩한 유해를 대구로 모시던 때를 생각하며 소중한 얼굴 얼굴들이 그 소중한 모습들이 그립습니다. 고인이 되신 김시완, 권국명, 서영진, 이은진, 그리고 두 눈이 멀어버린 권순기 님과 김길수, 김영부, 박태봉, 고국상 모두모두 잊지 못합니다. 또한 선종하신 당시 수원교구장 김남수 주교님, 성모성심 수도회 총장 정행만 신부님, 서울 절두산 성당 주임 박희봉 신부님의 도움을 잊지 못합니다. 이승을 떠나신 이들의 천상영복을 빕니다. 신당동 본당 소속이시던 이영기 보나 님은 각별하였으며 최재용 신부님과 소신학교 은사이신 이원순 교수님, 이재학, 이종만, 이종필, 주 마리아 님, 한 분 한 분 여전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윤일 요한 성인을 비롯 한국성인 시성 30주년의 해에 언젠가 한국교회가 480위 성인을 모시는 성인대국이 되리라 생각해 봅니다. 103위 성인과 시복되실 124위와 증거자 최양업 토마스, 성 베네딕토 왜관 수도원의 하느님의 종 신상원 보니파시오와 김치호 베네딕토와 동료 순교자 36위, 조선왕조 치하의 순교자와 증거자 광암 이벽 요한 세례자와 동료 132위, 근현대 신앙의 증인 홍용호 프란치스코 보르지아 주교와 동료 80위의 행적을 묵상하며 선조신앙인들의 천상전구를 빕니다. **궤**



이 사람을 아시나요? _ 이름난 가톨릭 신자들

교우셨어요?

문화홍보실



1



2



3

- 1 그레고리 펙
- 2 멜 깁슨
- 3 아놀드슈와제네거
- 4 알렉 기네스

할리우드에도 성당이 있습니다. 신자들 가운데는 누구나 알 법한 사람들도 있는데, 개중에는 니콜라스 케이지나 실베스터 스탤론, 손 코넬리처럼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성당에 오는 이들도 있지만, 여기 나온 사람들은 매주 열심히 다니는 분들입니다. 배우들 가운데는 천주교 신자가 꽤 많지만 아무래도 유명인이다 보니 드러내지

않고 조용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세상 떠난 그레고리 펙, 존 웨인, 클라크 게이블, 비비안 리, 소피아 로렌, 그레이스 켈리 같은 이들은 드러내 놓고 성당에 다녔고, 알렉 기네스, 아놀드 슈와제네거, 멜 깁슨, 니콜 키드먼 같은 이들도 공공연하게 신자임을 밝힌 이들입니다. 할리우드의 유명한 감독들 중에도, 알프레드 히치콕이나 존 포드같은 고인이 된 사람들 말고도 신자가 많습니다. **▶▶▶**



4

금주의 성인

1월 19일	성 가누토(왕, 순교자, 덴마크, 1086년), 성녀 피아(순교자, 2세기), 성녀 베아트릭스(수녀, 프랑스 랑스, 1216년경)
1월 20일	성 네오피토(소년, 순교자, 니케아, 310년), 성 세바스티아노(군인, 순교자, 로마, 288년경) 성 에우티미오(수도원장, 378~473년), 성 파비아노(교황, 순교자, 로마, 250년)
1월 21일	성 메인라토(은수자, 신부, 순교자, 스위스 아인지델른, 861년), 성녀 아녜스(동정 순교자, 로마, 304년경) 성 알바노(신부, 순교자, 영국, 1583~1642), 성 푸블리오(주교, 순교자, 몰타, 112년경) 성 프록투오소(주교, 순교자, 스페인 타라고나, 259년)
1월 22일	성녀 블레실라(과부, 로마, 383년), 성 빈첸시오(부제, 순교자, 스페인 사라고사, 304년) 성 오르시오(순교자, 305년)
1월 23일	성 마임보드(순교자, 프랑스, 880년), 성 야가탄젤로(부제, 순교자, 터키 앙가라, 308년) 성녀 에메렌시아나(동정 순교자, 로마, 304년), 성 일테폰소(대주교, 저술가, 스페인 톨레도, 607/610~667년) 성녀 파르메나(부제, 순교자, 소아시아, 98년경)
1월 24일	성 마체도니오(은수자, 시리아, 430년), 성 바벨라(주교, 순교자, 안티오키아, 250년) 성 펠리치아노(주교, 순교자, 이탈리아 폴리노, 159~254년), 성 프란치스코 드 살(주교, 설립자, 교회학자, 제네바, 1567~1622년)
1월 25일	성 아나니아(예수의 제자, 순교자, 다마스쿠스, 1세기), 성 아폴로(수도원장, 이집트 헬리오폴리스, 395년) 성 요엘(수도원장, 이탈리아 폴사노, 1185년), 성녀 유벤시오(순교자, 363년)

†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1월 23일 목요일은 (故) 이재희 베네딕토 신부님 선종 3주기입니다.

■ 2014년 교구 여성위원회 신년교례회



교구장 조환길(타대오) 대주교님께서는 1월 13일(월) 오후 2시 꾸르실로 교육관 대성당에서 교구 여성위원회 회원 200여명과 함께 신년교례회 미사를 봉헌하셨다.

■ 2014년 새 사제학교 개교미사



새 사제학교 개교미사가 1월 14일(화) 오전 10시 교구청 사제관 내 성당에서 지난 12월 27일(금) 수품된 12명의 새 사제들과 함께 교구 총대리 이용길(요한) 신부님의 주례로 봉헌되었다.

2014년도 대구주보 개편 안내

- | | |
|----|--|
| 1면 | 대구가톨릭사진가협회 지도신부님이신 홍창익(비오) 신부님과 회원들이 직접 촬영한 교구 내 본당, 성지 등의 사진으로 표지면을 장식합니다 |
| 3면 | 최창덕(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님의 전례이야기가 매월 1회 연재되며 문화홍보실에서 마련한 문화산책, 가톨릭문인들의 신앙칼럼이 연재됩니다. |
| 4면 | 기존의 사목단상과 복음의 눈으로 문화읽기는 그대로 진행되며 이달의 성인과 전례상식이 추가되어 월 1회 연재됩니다. |
| 5면 | 금주의 성인은 한 주간의 성인들을 소개하는 형태로 변경되고 기존 예화 코너와 더불어 이름난 가톨릭 신자를 소개하는 이 사람을 아십니까?가 월 1회 연재됩니다. |

인내심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날밤에 아버지께 기도하신대로 주님과 아버지께서 하나이시듯이 ...



미사안내

가두선교단 월례미사	1월 20일(월) 10:00 경산성당	한국의방선교회 후원회미사	1월 21일(화) 14:00 신암성당
2대리구 교정사목후원회 월례미사	1월 20일(월) 10:30 범어성당		1월 22일(수) 10:00 죽도성당
포항지역 군종후원회 월례미사	1월 20일(월) 11:00 죽도성당		1월 22일(수) 14:00 토마스성당
한티순교성지후원회 월례미사	1월 20일(월) 11:00 수성성당	김천지역 교정사목후원회 월례미사	1월 22일(수) 10:00 평화성당
행복한재활요양병원 미사	1월 21일(화) 10:30 병원 6층	바뇌기도회 월례미사	1월 23일(목) 14:00 삼덕성당

성소 | 피정

섭리 기도 모임(미혼 여성)

일시: 2.8(토) 14:00
장소: 수원 왕림리 본원
문의: 천주섭리수녀회,
(010)3940-3635

2박 3일 무료 피정 (작은예수회)

기간: 1.24(금)~26(일)
장소: 가평 작은예수회마을
내용: 모든 질병과 어두움 버리기
출발: 대구시민회관 11:40
문의: 박테레사, (010)2646-0583

젊은이 빈마음 피정 (2박 3일)

기간: 2.21(금)~23(일), 선착순
장소: 강원홍천기도교회, 3만 5천 원
대상: 미혼 여성 (만 30세 이하)
문의: (010)8833-8107
<http://www.vincent.or.kr>

교육 | 모집

2014 학산야간중고등학교 신입생 모집

모집기간: 1.1(수)~2.21(금)
수업시간: 매주 월~금 / 18:30~21:00
대상: 중고등학교 미졸업자(검정고시대비반)
수강료: 무료(단, 교재비 본인 부담)
문의: 학산종합사회복지관, 634-7230

가톨릭교리신학원(통신)신입생 모집

원서접수: 2.7(금) 까지
과목: 신·구약, 신학일반(전례학 등)
대상: 평신도, 수도자
문의: (02)745-8339
<http://ci.catholic.ac.kr>

사이버 성경학교 2014년 1학기 개강

대상: 성경에 관심있는 전신자
접수: 2월 말 까지
문의: (010)7249-7966
<http://cyberbible.casuwon.or.kr>

여대생 기숙사 과달루페집 (종교무관)

주소: 대전시 서구 갈마로 187-1
문의: 성체선교클라라수녀회,
(042)534-8876

NLP 힐링댄스·음악 테라피

기간: 2.28(금) 20:00~3.2(일) 14:00

대상: 20~50세 여성 누구나
준비: 간편한 옷, 덧신, USB
회비: 8만 원
주최: 성심교육관(예수성심시녀회)

가톨릭신문 크루즈 성지순례

기간: 3.12(수)~27(목), 15박 16일
장소: 이탈리아·그리스·이스라엘
내측 498만 원, 오션뷰 528만 원
발코니 558만 원 - 대한항공 이용
문의: (02)2281-9070, www.cttourtour.org

인천교구 실버타운 <마리스텔라>

14년 3월 입주, 총 264세대 1,000
명상, 국제성모병원, 요양원 운영,
매일미사, 다양한 신앙프로그램
문의: (032)569-8500
<http://www.marisstella.or.kr>

안동 농은수련원 <여름 생명신앙캠프>

기간: 7,22(화)~8,5(화), 폴장완비
1차: 중·고등부, 8만 5천 원
2~5차: 초등부, 8만 2천 원
문의: (054)652-0592
<http://www.nongseun.kr>

신랑각시 결혼정보
전문직 · 초혼 · 재혼 · 만혼
서울 사무실 홍대 앞
이 원 교(요한나) | 20년 경력
(053)471-0707 · 016-817-8888
<http://www.sk1004.co.kr>
남구 봉곡동 영대병원 사거리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병원 ~
한영한마음아동병원
 병원장/의학박사 손찬락 (과파텔)
 365일연중무휴진료
 *평 일 : 오전 9시 ~ 밤 12시 까지
 *토·일·공휴일 : 오전 9시 ~ 밤 9시 까지
 ☎ 260-7777 ☎ 260-7575
 서울특별시 관서구 서문로 10 (구 달성초등학교지리)

행복한 재활·요양 병원
노인성 질환 전문요양
원목실 운동, 월레미사 봉헌
 원목팀장 **김 미 형**(요세파나)
 이 범 수(대건안드레아)
☎053)426-6000 (중구 보건소 옆)

라식, 백내장수술 병원

 **김기산안과**
KIM KI SAN EYE CENTER

의학박사/전문의 김 기 산(안드레아)
(전 동산의료원 안과과장)

반월당 대학원 9층
☎(053)257-8875
www.kisaneye.co.kr

2484 익스프레스

칠곡	313-2484
서구	566-2484
달서구	637-2484
수성구	761-2484

한여기(마오로) 011-514-3855

건어를 호성상회
(서문시장 내 주차빌딩 맞은 편)
김, 멸치, 산모용 미역, 안주, 반찬류
배호성(헨리고), 박필교(율리안나)
☎ (053)255-9077
010-9447-5193

행사 | 모임

23회 성 이윤일 요한제

주제: 선교의 꿈

9일기도미사: 1.12(일)~20(월) 15:00

순교기념미사: 1.21(화) 17:00

문의: 관덕정순교기념관, 254-0151

가나 피정 안내

기간: 3.1(토) 14:00~2(일) 16:00

장소: 연화리 피정의 집

참가비: 1인 5만 원(선착순 30쌍)

문의: 교구 가정담당, 250-3114

전례꽃꽂이연구회 월례회

일시: 1.20(월) 14:0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네이버: 대구대교구 전례꽃꽂이연구회

교육 | 모집

교구 성서사도직 성경통독과제 참가자 연수

기간: 2.15(토) 15:00~16(일) 15:00

장소: 한티피정의집 / 회비: 6만 원

대상: 2013 성경통독과제 1회 이상 참가자

계좌: 대구)508-10-448845-1 성서사도직

문의: 250-3082, <http://cafe.daum.net/biap>

한국천주교회사 및 성지안내봉사자 4기 모집

기간: 3.7~7.11 (매주 금) 19:0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수강료: 20만 원

담당: 서준홍(마티아) 신부

문의: 상담봉사자, (010)2802-2703

오르간 성악 지휘 전공반 모집

문의: 교구 음악원, 255-4847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한 ME주말

318차: 2.21(금)~23(일)

319차: 4.4(금)~6(일)

장소: 한티피정의집

문의: 대구ME, 983-0521

14년도 1학기 신학성경강좌 수강생 모집

성사론, 축일과 신자생활, 윤리신학, 요한

묵시록, 성화와 함께하는 성경이야기, 동양

철학, 대구의 역사와 문화, 미사전례와 신

자생활, 신약구약성경과정, 구약성경입문

다음카페: 평신도신학교육원, 660-5105

14년도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보육교사양성과정 신입생 모집(1년)

특별과정(소양) 자격취득가능

문의: 대구가톨릭대 보육교사교육원

850-3055 / 3366

15회 대학생 필리핀 해외봉사어학연수

2차: 2.27(목) (8, 12주)

3차: 3.29(토) (8, 12주)

기타: 캐나다, 호주 연계연수 가능

해외봉사인증서(학점인증가능)

문의: 대구청소년수련원, 593-1273

대구가톨릭문화관 강좌 수강생 모집

플러트, 바이올린, 오카리나, 우쿨렐레,

통기타, POP, 초코아트, 톨페인팅, 백

세전강강좌(무료) / 문의: 476-6211

성요셉요양병원(구노공가톨릭병원)환우 모집

노인성질환(치매·중풍 등), 말기암

환우 영성치유 돌봄, 봉성체

장효원(요셉) 신부님 매일미사 봉헌

입원상담: 615-4871

대가대 모래놀이치료실 개설

대상: 만5세~성인(심리상담이 필요한)

장소: 대구가톨릭대 평생교육원 윤일관 내

상담: 김용희 모니까(모래놀이상담사급)

문의: (010)4096-2296

마음으로 책임지기(독서치료)

일자: 2014년 3월 매주 화요일

시간: 18:00~20:00 (2시간 10주간)

장소: 남산동 성바오로 서원 / 12만 원

대상: 남, 녀 (30대~50대 신자)

문의: 성바오로수도회, 256-4592

새빛학교 신입생 모집 및 교사 채용

교사: 4년제 대졸 미혼 신자

접수기간: 1.24(금) 까지

신입생: 한글에 자신없는 성인

접수기간: 2.12(수) 까지

문의: 476-3100 (1호선 교대역)

HS **희성고속관광(주)**
HEE SUNG EXPRESS TOURIST CO., LTD.
대표이사 서 상 윤(안젤로)
송 정 애(안젤라)
전세버스 / 국내여행 / 해외여행
☎ 522-5800 | 017-508-4328
010-2002-4328

천주교 대구대교구가 운영하는
100년대학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가대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갑니다
2014. 5. 15
개교100주년
기념식
대구가톨릭대학교
100
YEARS

성모발현 성지순례
루르드, 파티마, 스페인(바르셀로나)-12일
출발일: 2014년 3월 24일
순례경비 3,990,000원
T. (053)253-3399
(주)성지여행 조열레(유티노)
www.sungjiltour.com

장례 지도사
무시험 국가자격증
본인부담 40만원
(선종봉사자, 취업희망자)
대구가톨릭대학교평생교육원
☎(053)660-5556~7

광전 **이조맛김**
시혜한 청정해역 명품 김
김·간어물·젓갈류 판매
성전안림기슭 미련 및 바지해, 성모회·지모회 등 각종 단체 기증모음
전 영 진(바오로) 010-4192-5655
이 경 숙(모니카) 010-4123-5353
동원 351-0054-3404-83 예금주 이경숙
한개라도 배송드립니다. 5만원 이상 배송비 무료

에이 통증의학과
비수술적 치료전문
• 목 / 허리 디스크 / 협착증
• 이명 / 어지럼증 / 두통
• 오십견 / 어깨통증 • 무릎 관절통
통증의학전문/원장 이준석(이나시오)
- 대구가톨릭대학병원 외과교수 -
TEL : (053)742-8275
범어네거리 / 지하철 2호선 범어역 1번 출구 앞

장 윤 제
연합치과
뉴욕대학교 임플란트과 임상교수
원 장 장 윤 제(바르나바)
대구은행 본점 맞은 편
T. (053)752-9797

Rex Diamond
대구갤러리
예물, 천연보석, 다이아몬드, 순금바
대표 임 미 순(마리아)
동아백화점 본점에서 시청방향 사이
(맞은편 통일주차장 무료)
☎(053)428-7989 | 010-4439-9991
교구님들께는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